

## 새 삶의 스타일

우리가 새 삶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일은 결코 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 삶이란 옛 삶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와의 대결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해를 이룩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일은 단순한 자기 부정이라기보다, 삶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양상>을 설정하고, 창조적인 지향을 해 나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참으로 새로운 삶의 바탕을 찾는 일은 이러한 참된 죽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참 죽음의 경험은 시시각각으로 내려야 할 결단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걱정으로써 자기 대결을 겪는 생활일 것이다. 그러기에 새 삶의 스타일은 새롭고 신기한 것에 무조건 순응하고 영합하는 일이 아닌 동시에, 무작정 자기 부정을 하는 생활도 아닐 것이다. 참된 의미의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자기 해방을 경험하는 생활이요, 거짓되고 피상적인 <새로운 것>의 허위를 고발하는 생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새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실존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일이며 인간의 허망한 약속에 대해서 항거하는 생활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매일의 죽음과 자기 대결을 겪지 않는 <새로운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다.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새 삶의 스타일이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미래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이요, 또 현실 생활 속

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몸의 부활>의 소망인 것이다. 몸의 구원을 도외시하여 온 신앙은 그릇된 이교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러한 그릇된 이방인의 생각을 제거해야 만 할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몸의 구원을 등한히 한 데서 밀교 적인 유사 종교가 생겨지게 되었다.

언약에 사는 신앙은 이처럼 몸과 마음을 가진 전체 인간의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다. 그러기에 하늘 나라에서 받을 보상에 못지 않게 현실의 몸의 정치를 소중히 여긴다. 몸의 정치 속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새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또 바랄 까닭은 없지 않겠습니까?”(롬 8:24) 새 삶의 스타일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코 몸과 마음의 구원을 희구하는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